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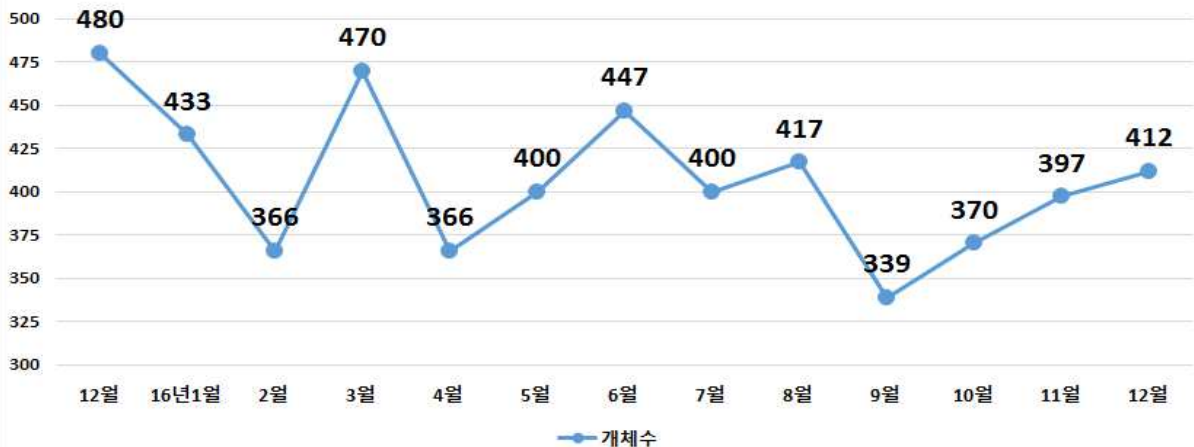


2016년 12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조사

【 요약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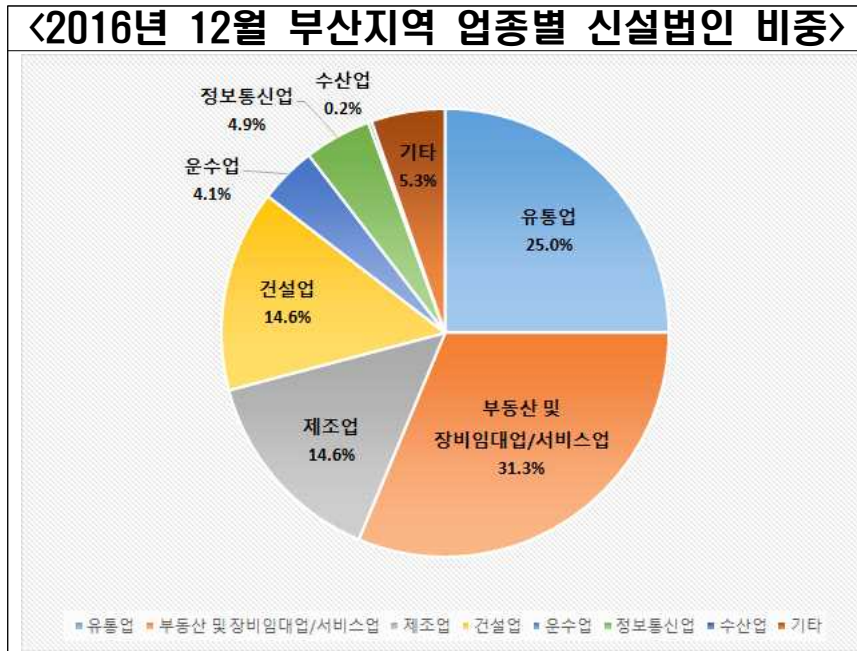
- 2016년 12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 : 412개체
(전년 동월의 480개체 대비 -14.2% 감소, 전월의 397개체 대비 3.8% 증가)
-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2015년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영향으로 유통업을 위시해 신설법인이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와 최근 조선기자재,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황부진 지속, 국내 정치불안 가중 등의 영향으로 2016년 12월중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14.2% 감소
- 2016년도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 : 4,817개체(전년 4,855개체 대비 0.8% 감소)
- 2016년도 신설법인 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에 그쳐, 경기불황 속에서도 부산지역 창업 심리는 꾸준히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창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창업 감소
-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(-18.9%)과 운수업(-20.4%)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산업에서는 신설법인이 감소한 반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, 금융권의 대규모 명퇴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자본금 규모가 작은 부동산 및 서비스업(15.5%)과 유통업(13.1%) 등에서 생계형 창업이 크게 증가

최근 1년간 부산지역 신설법인 추이



1. 2016년 12월중 신설법인의 업종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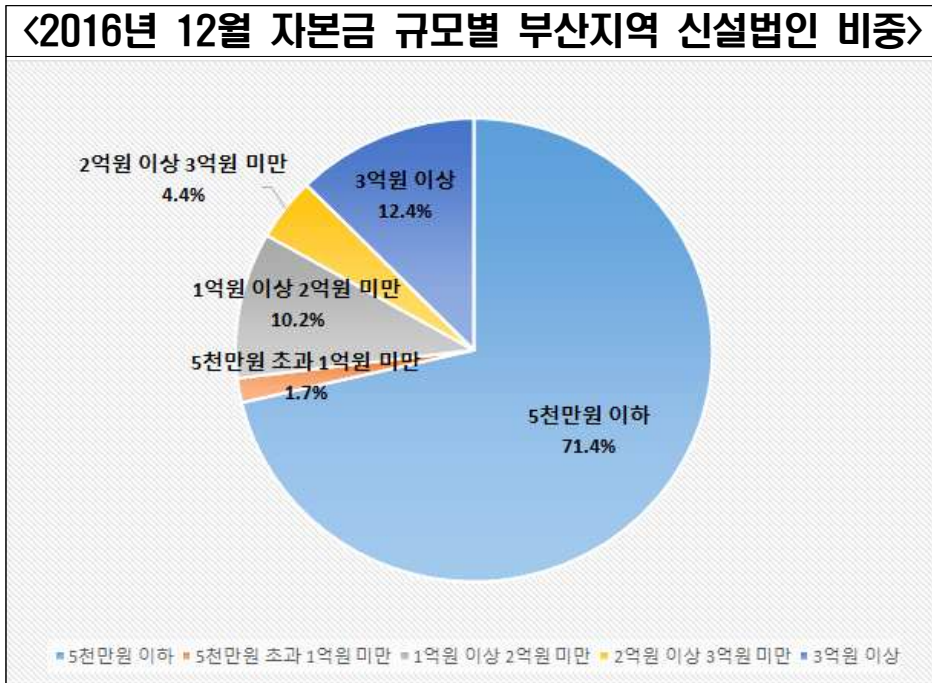
- 12월 신설법인 412개체 중 「부동산 및 장비임대업/서비스업」이 129개체(31.3%)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
 - 이어 유통업 103개체(25.0%), 건설업 60개체(14.6%), 제조업 60개체(14.6%), 기타 22개체(5.3%), 정보통신업 20개체(4.9%), 운수업 17개체(4.1%), 수산업 1개체(0.2%) 등의 순



-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2015년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영향으로 유통업을 위시해 신설법인이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와 최근 조선기자재,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황부진 지속, 국내 정치불안 가중 등의 영향으로 2016년 12월중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14.2% 감소
-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년동월과 비교하였을 때, 운수업에서 41.4%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, 이어 제조업 30.2%, 유통업 28.5%, 숙박업 및 발전업 등이 포함된 기타산업 8.3%,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/서비스업 0.8% 등의 순으로 감소
 - 운수업은 최근 부산지역 교역 부진에 따른 수출입화물 감소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부산항 성장세 둔화 등의 요인으로 해운 및 항만산업의 업황이 부진하면서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
 - 제조업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주력산업의 업황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, 특히 자동차부품과 철강제품의 수출 물량감소 및 단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관련 분야 신설법인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신설법인 감소세 지속

2. 2016년 12월중 신설법인의 자본금 규모별 현황

- 12월중 신설법인을 자본금 규모별로 분석하면 5천만원 이하가 294개체(71.4%)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
 - 이어, 3억원 이상 51개체(12.4%), 1억원 이상 ~ 2억원 미만 42개체(10.2%), 2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 18개체(4.4%),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7개체(1.7%)의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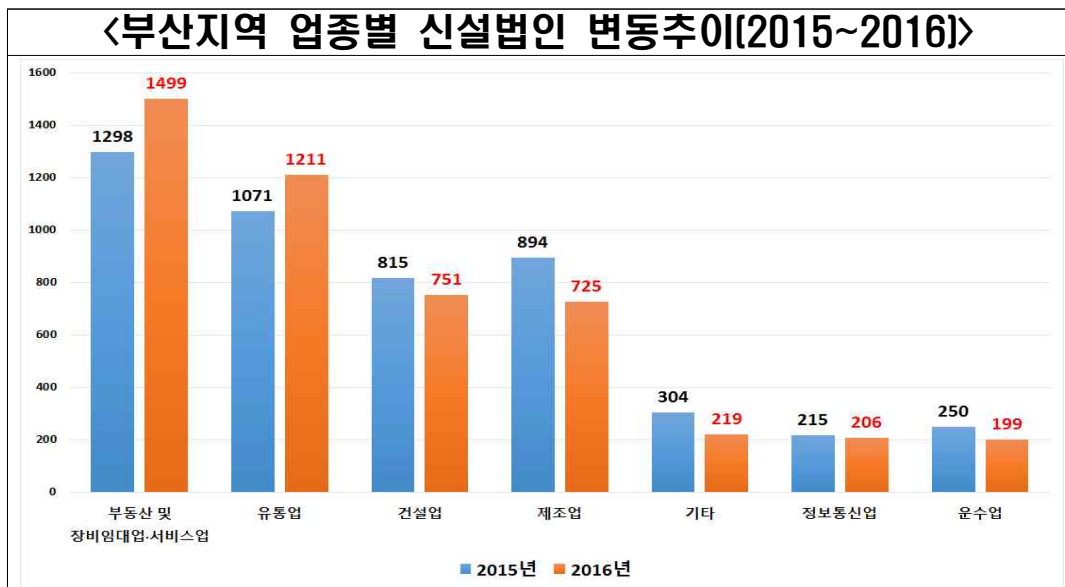


- 5천만원 이하 신설법인은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서비스업 104개체, 유통업 81개체, 제조업 38개체, 건설업 31개체, 정보통신업 16개체, 기타 16개체, 운수업 7개체, 수산업 1개체의 순으로 나타남.
 - 전체 신설법인중 5천만원 이하의 자본금 영세 비중이 71.4%인 가운데,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·서비스업은 80.6%가 5천만원 이하의 영세 업체였으며, 이어 정보통신업 80.0%, 유통업 78.6%, 기타 72.7%, 제조업 63.3%, 건설업 51.7%, 운수업 41.2%가 5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창업이었음.

3. 2016년도 신설법인 현황

□ 2016년도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4,817개체로 2015년 4,855개체대비 0.8% 소폭 감소

- 2016년도 신설법인 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에 그쳐, 경기불황 속에서도 부산지역 창업심리는 꾸준히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창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창업 감소한 가운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(-18.9%)과 운수업(-20.4%)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산업에서는 신설법인이 감소한 반면,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 및 서비스업(15.5%)과 유통업(13.1%) 등에서 생계형 창업이 크게 증가
- 업종별로는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·서비스업이 1,499개체(31.1%)로 가장 많았고 이어, 유통업이 1,211개체(25.1%), 건설업 751개체(15.6%), 제조업 725개체(15.1%), 기타 219개체(4.5%), 정보통신업 206개체(4.3%), 운수업 199개체(4.1%), 수산업 7개체(0.1%) 등의 순



※수산업 2015년 8개체, 2016년 7개체

□ 업종별 전년대비를 살펴보면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·서비스업과 유통업은 전년대비 각각 15.5% 13.1% 증가한 반면 운수업은 20.4%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제조업 18.9% 건설업 7.9% 정보통신업 4.2% 등의 순으로 감소

-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조선기자재 및 철강 등 주요 제조업의 부진세가 지속된 가운데, 한진해운 법정관리, 태풍과 지진 등으로 조선·해운 및 항만산업의 경기 침체가 가중되어 제조업과 운수업 등 관련 산업의 창업이 부진했기 때문인 반면,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, 금융권의 대규모 명퇴 등의 요인에 따라 부동산과 서비스업, 유통업 등에서 비교적 자본금 규모가 작은 창업은 증가

2016년 12월중 신설법인 현황

(단위 : 개체, %)

구	분	2015년			2016년				증 감 륜			
		11월	12월	누계 (12월)	11월	12월 (당월)	누계 (12월)	비중	전 년 동월비	전월비	전 년 동기비	
합	계	414	480	4,855	397	412	4,817	..	△14.2	3.8	△0.8	
산업	수 산 업	2	0	8	1	1	7	0.2	..	0.0	△12.5	
	제조업	음 . 식 료 품	4	6	90	9	3	75	0.7	△50.0	△66.7	△16.7
		섬유 . 신발 . 가죽	1	12	106	3	8	75	1.9	△33.3	166.7	△29.2
		화학 . 고무 . 텍	4	7	51	4	7	75	1.7	0.0	75.0	47.1
		기계 . 금속 . 철강 . 전	40	53	531	33	41	422	10.0	△22.6	24.2	△20.5
		자 전 기	(3)	(6)	(58)	(0)	(3)	(34)	0.7	△50.0	..	△41.4
		(자 동 차 부 품)	5	8	116	5	1	78	0.2	△87.5	△80.0	△32.8
	소 계	54	86	894	54	60	725	14.6	△30.2	11.1	△18.9	
	별업	건 설 업	53	56	815	57	60	751	14.6	7.1	5.3	△7.9
		유 통 업	130	144	1,071	109	103	1,211	25.0	△28.5	△5.5	13.1
		운 수 업	17	29	250	22	17	199	4.1	△41.4	△22.7	△20.4
		정 보 통 신 업	15	11	215	22	20	206	4.9	81.8	△9.1	△4.2
		부 동 산 및 장 비 임 대 업 . 서 비 스 업	부 동 산 및 장 비 임 대 업	58	60	567	54	55	657	13.3	△8.3	1.9
기 타 임 대 업 . 서 비 스 업			68	70	731	64	74	842	18.0	5.7	15.6	15.2
소 계			126	130	1,298	118	129	1,499	31.3	△0.8	9.3	15.5
기 타	17	24	304	14	22	219	5.3	△8.3	57.1	△28.0		
자 본 규 모 별	5 천 만 원 이 하	292	347	3,345	282	294	3,294	71.4	△15.3	4.3	△1.5	
	5천만원 초과~1억원 미만	10	1	73	0	7	78	1.7	600.0	..	6.8	
	1억원 이상~2억원 미만	66	64	755	54	42	685	10.2	△34.4	△22.2	△9.3	
	2억원 이상~3억원 미만	19	24	280	23	18	255	4.4	△25.0	△21.7	△8.9	
	3 억 원 이 상	27	44	402	38	51	505	12.4	15.9	34.2	25.6	